현불 논단

불교와 초연결시대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코로나19 집콕 중 활용할 수 있는 불교문화 · 명상 콘텐츠 부족 확인
잠재력 있으나 대중화 구심점 無

韓 불교학, 상아탑에 갇혀 안주 중
옥스퍼드대 AI '불교 이러닝' 보급
동경대 불경 전산화로 디지털 주도

보존 가치 문화재 · 학문 범주 탈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 접목 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불교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통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에서 손쉽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명상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는 초연결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휴대폰은 통해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혼자서도 서로 접촉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실상 불교의 문화와 명상은 이러한 분야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불교학과 불교문화 및 멀티미디어를 하나로 묶어 인문 · 사회 · 과학 융복합을 이루어내서 새로운 시대의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며 불교를 대중화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불교미술과 문화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불교미술과 문화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명상과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양자 모두가 현대사회의 혁신적 흐름을 주도하는 멀티미디어를 인문 · 사회 · 과학에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불교학과 불교문화가 3D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그리고 입체음향과 결합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거듭난다면 어떨까? 아마도 불교학은 첨단화 되고 불교명상은 산업화되며 불교문화는 보편화되어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불교학이 인문학의 상아탑에 안주하는 사이에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들은 불교와 불교문화를 다양한 분야에 결합하고 있다. 일본 동경대는 불교경전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y)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 옥스퍼드대 불교학센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교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비블리오테카 폴리글로타(Biblioteca Polyglotta) 연구소는 불교의 고문헌들을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입력하고 있고 미국 하버드대의 켐렙(CAMlab)은 3D 스캔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디지털로 영구보존하는 기술을 불교학과 불교미술에 접목하고 있다.

사실상 유튜브는 다양한 힐링과 명상을 보조해주는 영상들과 불교학과 불교문화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영상들로 가득하고, 구글맵은 세계문화아틀라스로서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사진들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산사를 집에서 체험하고 불교의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며 컴퓨터 그래픽과 음향효과를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효과적으로 명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보다 더 큰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자각하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높아진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적 수준에 있는 우리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뛰어난 한국의 불교문화에 접목할 때가 되었다. 이제 불교학은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보존에만 그치는 불교문화라는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고 불교와 불교문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초연결시대 멀티미디어에 기반한 불교 · 문화크리에이터들이 활약하는 한국불교의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법사는 여래의 使者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에 '상불경(常不輕) 보살' 이 나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서 보살의 인행(因行)을 닦을 때 이름이다. 상불경이란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고 공경 예배한다' 는 뜻이다.

오랜 과거세에 상불경 보살이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예경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보살의 수행을 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부처인 것처럼 감히 나에게 수기(授記) 예언을 한다' 고 비난을 하였다. 그는 많은 모욕을 오랜 세월 동안 받으면서도 누구에게도 화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아서 '상불경' 이란 별명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전생담' 에 나오는 선혜(善慧)선인이 정광불께 드리는 정성스런 공양 이야기, 인욕(忍辱)선인이 갈리왕에게 사지가 찢기는 고통에서도 잘 참고 견딘 이야기, 설산(雪山)동자의 살신구법(殺身求法) 이야기 등이 석가모니께서 전생에 수행과 공덕을 쌓은 감동적인 보살행의 일화이다.

〈화엄경〉에 "모든 사람이 부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구나"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뜻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중생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상불경보살은 사람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 부처임을 설파하고, 인간에 대한 예경을 실천한 분이다.

4월 30일이 부처님오신날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집단감염에 대한 종교활동의 연기 권고에 동참하는 취지로 한 달을 연기하여 봉축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중세시대 페스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요익(饒益)중생이 불교사상의 핵심이다. 종교와 신, 극락과 천국도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80생애를 흔히 팔상성도(八相成道)로 나누어 설명한다. 물론 부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상징적인 표현도 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이다. 설법의 주제와 내용은 석가모니의 생애와 깨달음이 기본틀이다. 법사는 여래의 사자(使者)로서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중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설법을 해야 한다.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셔라"라고 설법하였다.

절기, 명절, 세시(歲時)에 맞춰서 설법을 해야 법회가 원만하게 성공한다. 불교의 4대명절에 맞춰서 석가모니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의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효과적이다. 시중(時中)이란 시기(때, 절기, 세시, 명절)와 장소(설법무대, 법당), 대상(청법대중)의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것을 뜻한다. 중생의 수준에 맞게 하는 수기(隨機)설법도 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계가 하나의 그물코(인타라망)처럼 연결된 연기(緣起)의 세계로서 '고통받는 이웃이 행복해야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중생 치유하는 '봉축 주간' 기대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도 입재법회' 가 4월 30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1만5000여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코로나19라는 예상 밖의 사태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봉축 주간이다. 올해 봉축 주간은 4월 30일(음력 4월 8일)부터 5월 30일(음력 윤4월 8일)까지 무려 한달간 지속된다.

혹자는 그간 유례없던 올해 봉축에 대해 "부처님이 한달이나 우리 곁에 머무는 셈"이라고 했다.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의 아픔을 더 살뜰히 보듬기 위함이 아닐까. 올해 봉축을 맞이하는 불교계의 행보 역시 이러한 부처님 자비와 맞닿아 있다. 봉축주간 내내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며 코로나로 인한 희생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불교계도 쉽지 않은 시기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부터 그 대응에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로 호평을 받아온 불교계는 가장 큰 불교명절인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한달 뒤로 연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데 이어 연등회 등 봉축행사까지 대폭 축소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사찰 재정난에 시달리는 등 희생을 감내해야 했기에 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사찰의 이익보다 우리사회 아픔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봉축을 택한 것이다. 불교계를 향해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이어지는 이유다.

한달간 이어지는 봉축주간, 불교계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사회 어두운 그늘에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 우리사회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 고통받는 중생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자비 실현에 나서는 치유의 주간이 되길 바란다.

BBS 불교방송 30주년에 부쳐

BBS불교방송이 5월 1일 개국 30주년을 맞았다. 1990년 5월 1일 불교계 최초 라디오 방송 송출이란 첫발을 디딘 것은 불자들의 염원이 모였기에 가능한 이른바 언론불사였다.

BBS불교방송의 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지상파 불교방송국을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다.

그동안 BBS불교방송은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는 등 발전을 거듭했으며, 라디오 방송에서의 틀을 벗어나 인터넷 뉴스 전송과 IPTV 진출 등 불교종합미디어로 발전을 거듭했다.

외형적 확대 뿐만 아니라 거룩한 만남 등 사회 공기로서의 행보도 앞장섰다. 불교계에서는 어렵기만 한 불교를 일반 사회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한 전법 포교방송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현재 BBS불교방송을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일종의 출발선에 서 있다. 모바일과 디지털이란 언론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운 콘텐츠와 매체 변화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미디어 진출과 이에 맞는 불교콘텐츠 개발을 선언한 BBS불교방송의 30주년 일성은 불교 미디어의 새로운 변화에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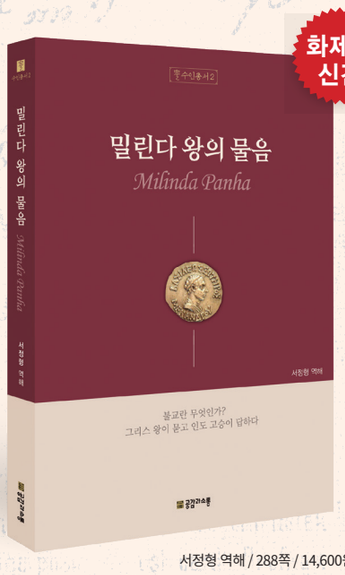
불교미디어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닌 불법 홍포의 중요한 수단이자 핵심요소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불교의 저변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미디어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막중해진다.

BBS불교방송의 30주년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불교 미디어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잠재적인 불자를 발굴할 뿐만 아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전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BBS불교방송의 새로운 미래가 불교 미디어 발전의 시금석으로 자리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 비구 페살라(Bhikhu Pesala)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리스 데이비즈(T. W. Rhys Davids)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한국불교 전통의식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종무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불교전통의식을 개강합니다.
강주 민지효스님은 기초부터 각종 범패의식을
십여년간 강의해온 노하우 실력으로 알기 쉽고
잊혀지지 않는 범음범패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시로 기초적인 의식을 강의하여 절 살림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며 아직 초발심인 스님을
위하여 훌륭하신 은사님을 소개하여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분은 홍익 범패단으로
입단하여 회원으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모십니다.

■ 개 강 : 2020년 5월 5일 (수시모집)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선금

지효스님 010-4466-3575
종무원 송과장 010-9610-8505

교육기간	강 사	교육내용
3월, 4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도량석 새벽 종송 2교시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3교시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구궁법,명리학
5월, 6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거불, 사시불공, 조석 예불 2교시 시다림, 장례의식 3교시 구병시식, 방생의식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7월, 8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9월, 10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화의재 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1월, 1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천수바라, 요잡, 화의재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월, 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바라작법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부산 종무원장 자관 | 강주 민지효